

도서관인의
窓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독서치료의 연단계

| 글: 김정근 *



주 변의 젊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 작업도 함께 하며 이런 저런 치료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해온지도 여러 해 되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독서치료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의 발전을 위해 의외로 좋은 품목이 될 것 같다. 연구와 실천에 좀 더 노력한다면 확실히 우리 분야에 활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긴다.

나는 이런 생각도 든다. 지금까지 우리 학문과 현장이 차려내는 식탁의 메뉴가 비교적 건강식 계통의 식단이긴 했지만 큰 특징이 없고 눈에 금방 들어오는 접시가 부족하고 그래서 신명이 덜했다고 한다면, 독서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품목은 그와 같은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도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나의 이 기대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발견한 독서치료의 효과에 근거를 둔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란 통상적으로 말하는 책의 힘, 독서의 위력과는 질

적으로 다른 무엇을 말한다. 그것은 사람의 '아픈 마음' (sick mind) '상한 감정' (wounded emotion) 의 치유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웰빙시대의 흐름과도 잘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조사를 해보면 독서치료는 우리 분야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되었다. 손정표 교수가 1970년대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과 의의를 제기한 이래 그의 제자들인 변우열 교수와 양재한 교수도 논문 발표를 하였다. 그들의 작업은 간헐적이긴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변우열 교수와 양재한 교수의 관심은 공주 지역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끔 그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이외에 1990년대까지 우리 분야에서는 이대의 장귀녀 선생, 중대의 유혜숙 교수, 청주대의 윤정옥 교수가 논문 생산을 했다. 우리 분야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의 시작과 발전을 잠정적으로 구분해본다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gkim@pusna.ac.kr

이 글을 쓴 김정근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로 있는 한 편, 비블리오테라피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과 칼럼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의 연구와 실천>, <독서치료에서 상황이란 무엇인가>, <치유서란 무엇인가>, <치료사는 누구인가> 등이 있다.

이르는 이 시기를 '준비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에서 이 '준비기' 동안의 학술적 노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손정표, 비행 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개발과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임, 도서관, 32권 9호(1977), 39-49쪽.
- 손정표, 독서지도방법론, 학문사, 1978.
- 양재한, 독서요법을 통한 잠재적 비행소년 인성치료, 창원전문대학논문집, 2집(1984), 407-429쪽.
- 장귀녀,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변우열, 독서에 의한 인격형성, 도서관학논집, 23집(1995), 29-77쪽.
- 변우열, 비행 청소년 인성 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도서관학논집, 26집(1997 여름), 131-168쪽.
- 유혜숙,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요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7.
- 윤정옥,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도서관, 53권 1호(1998 봄), 47-64쪽.
- 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 태일사, 1999.

'준비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 우선 그 시기 작업의 키워드로서 '비행소년' '비행청소년' '노인의 우울증' '인성치료' '인격형성' '적용 가능성' '이론과 적용' 등이 떠오른다. 문제가 발생한 일부 특정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독서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주로 일본과 미국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주장하고 증명해보이기도 하는 행태를 나타낸다. 선구자로서 계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연구실에 앉아서 바깥을 향해 '여기 좋은 것이 있

으니 한 번 시도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할뿐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나아가서 자신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식의 적극성은 별로 보여주지 않는다.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다소 막막하게 느껴지고 애매해지기도 한다. 당시의 여건이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까. 또는 연구자란 원래 이런 것인지, 이래야 하는 것인지, 특정 연구자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들의 개인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우리 분야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은 많이 달라진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연구 활동이 활발해졌다. 연구 생산의 양도 많아졌다. 교육학, 아동학 등의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양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논문과 단행본을 합치면 그 이전 전체 시기의 생산량의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과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감안하면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연구자의 풀이 제법 커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개하자면 지면이 걱정될 정도이다. 2000년 이후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데서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고 검색 자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고를 슬며시 독자에게 넘기면서 경제적인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다만, 신진 연구자들의 리더십그룹을 형성하는 경기대의 한윤옥 교수, 대림대의 황금숙 교수, 울산남부도서관의 김순화 박사, 이화여대의 박금희 선생, 부산대의 김수경 선생의 그동안의 역할이 돋보인다는 점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신진 연구자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연구의 내용 면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연구주제를 화려하다고 할 정도로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해 보여준다. 독서치료에서 중요한 요소인 '상황'의 분류에 관심을 보이고, 공공도서관에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미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시스템화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시키고 있다. 또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포커스를 구체적으로 '주부의 마음 상함' '20대 여성의 상처'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시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 '집단 따돌림과 인성치료' '성인아이adult child 문제' '대학생의 문제음주' '이혼가정 아동의 친사회성' '암환자와 가족' '저소득층 자기보호아동' 등에 맞추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에서 직접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그들은 여러 공간을 활용한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기도 한다. 대상은 주로 지역 학교의 어린이들, 학교 선생님들, 도서관의 사서들, 학교 상담 봉사자들, 주부들이 된다. 한편 이들은 '치유서'를 개발하고 조직화 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 작업은 결국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연결이 된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그 자체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유익한 피드백 효과를 얻는다. 가령 실천가들의 경험을 통해 '독서치료에서 상황이란 무엇인가' '치료사는 누구인가' '진행자는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는가' '픽션과 논픽션 자가치유서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이론을 다듬게 된다.


내가 관여하고 있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도서관과 사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낮은 단계'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높은 단계'까지를 언급하면서도 실천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해보이며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낮은 단계' '높은 단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독서치료 교재에서 통상 언급하는 '발달적 독서치료' developmental bibliotherapy와 '임상적 독서치료' clinical bibliotherapy를 가리킨다. 사람은 태어나서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마음 아픔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와 같은 고통의 완화와 치료에 독서치료가 개입한다. 이것이 발달적 독서치료이다. 생활인을 위한 독서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도가 지나쳐서 고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장애 현상이 드러난 경우에도 독서치료가 개입한다. 이것을 임상적 독서치료라고 한다. 물론 둘 사이에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다. 파텍(John T. Pardeck) 같은 학자는 임상적 독서치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신과의사, 심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전체 치료 프로그램의 하위 단위adjunct로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나는 이런 입장이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독서치료, 즉 임상적 독서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아직은 연구와 경험의 축적이 부족하다. 임상적 독서치료를 실행하려면 자격증

문제가 대두하는데 우리 분야에서 이것이 시원하게 해결된 상태도 아니다. 더구나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면 그것을 위한 우리 자신의 준비와 상대의 태도가 형성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심화시켜가는 한편 실천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1970년대에 발의가 된 이후 지금까지 연구와 실천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보였다. 나는 위에서 1990년대까지를 '준비기'라고 불러보았는데 2000년 이후 시기를 '이륙기'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짧은 '이륙기'가 지나면 긴 '정숙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해본다. 지금은 이륙기의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정숙기'로 넘어갔을 때 '임상적 독서치료'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하고 기대해본다. 비행기의 이륙이 그렇듯이 이륙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조심할 일이 있어 보인다. 한편, 기억할 것은 '발달적 독서치료'는 지금 우리의 능력과 단계에 적합할 뿐 아니라 기여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 주부, 직장인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정신보건 증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무대는 넓고 할 일은 많은 공간인 것이다.

'이륙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분야에서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서가 주도하고 도서관이 기반이 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서관을 찾아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이어야 할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상황은 어떻게 설정할까. 진행자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

까. 치유서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되어 갈 때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고유한 브랜드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00년 이후에 나온 연구와 실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브랜드화의 초기적 작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자들의 지혜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

‘이륙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분야에서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서가 주도하고 도서관이

기반이 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다.

”